

# 동방신기 80만 팬클럽 '카시오페아' 패닉 상태

김성의 · 입력 2009. 8. 2. 19:12 · 수정 2009. 8. 2. 19:15

[JES 김성의] 팀 해체라는 최대 위기를 맞은 동방신기의 80만 팬클럽 카시오페아는 소송 소식을 전해 듣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아이디 'lea\*\*\*'를 쓰는 한 네티즌은 1일 카시오페아 홈페이지 게시판 동네방네를 통해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오빠들이 이런 선택을 했다니, 그간의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슴이 아프다"며 안타까워 했다.

또다른 아이디 'zij\*\*\*'의 네티즌은 "극적으로 좋은 결론을 낼 수도 있으니 너무 흥분하지 말고 오빠들에게 힘이 되어 주자. 5년 동안 지켜왔던 동방신기에 대한 믿음을 지금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도 카시오페아 팬클럽 회원들을 포함한 네티즌들이 '동방신기 해체 반대'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2일 현재 서명인원만 1만5800명을 넘어섰다.

김성의 기자 [zzam@joongang.co.kr] ▷ 동방신기 80만 팬클럽 '카시오페아' 패닉 상태 ▷ 동방신기 변호사 "법적 절차 끝나는대로 팀 새로운 방안 제시" ▷ '해체설' 동방신기 입국, 갈등 뇌관 터지나 ▷ 日 언론 "동방신기 해체? 가족이라더니 법정싸움" ▷ 동방신기 日 소속사 에이벡스 "일본 활동 변함 없다"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